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결산 - 下

한 여름밤 잊지 못할 소리쌔머나잇

폭발적인 야외무대 관객 호평 잇따라... 예술성·대중성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

예술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올해 노력은 '만원 관객'이 답했다.

낮에는 실내 공연 중심으로, 밤에는 야외 공연을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15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경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놀이마당에서는 <소리쌔머나잇>을 통해 전통음악과 월드뮤직,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다채로운 음악으로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전 공연은 무료로 진입 장벽을 낮췄다.

15일은 9인의 연희자로 구성된 <푸너리>가 강릉단오굿을 재해석한 형태의 흥이 가득한 연희를 통해 '일마다 복이 오는' 소망과 축원을 전달했다. 이어 관악 기악 앙상블 <피리밴드저글>이 향피리, 저피리, 태평소 등 일상 소재를 기반으로 창작한 곡들을 통해 관악기들의 독특한 매력을 선사했다.

스페인 포커스로 기획된 <비구엘라의 민속음악>을 통해 이베리아 반도의 풍성한 음악적 유산이 담긴 흥겨운 민속음악을 선보였다. 만체고 기타, 레벡 등의 전통 악기와 프라이어, 향아리 등 일상 도구를 사용해 소박하면서 신명나는 소리풍경을 만들어냈다. 마지막은 독보적인 음악 색깔로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이날치>의 무대로 독특한 그루브를 만끽하며 모두가 함께 춤추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다.

16일에는 순창군 금과면 대장마을 들녘에서 불리워진 들노래를 복원한 <순창농요 금과들소리>로 첫 무대가 시작했다. 물 쭉는 소리, 모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피날레는 안은미컴퍼니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가 장식했다.

찌는 소리 등 선조들의 귀한 소리가 관객들에게 색다른 음악을 선사했으며, 사이프러스 전통음악에 현대적 색채를 가미해 독특한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는 '사이프러스 <무수 두마니>' 공연으로 흥겨우면서도 환상적이고 낮은 사운드를, 재즈보컬리스트 나운선과 피아니스트 벤자민 무제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나운선&벤자민 무제 듀오>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이날의 마지막 공연은 전통음악과 팝 스타일을 버무려 감각적인 '퓨전'으로 빛어내는 <서도밴드>가 대미를 장식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일본 청소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부시 치리멘타이코>가 와다이코를 통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독특한 음악을 가진 북의 매력을 선사했다.

아울러, '브라질 <비시가 70>'은 펑크, 재즈,

아프로비트, 삼바 등 브라질 전통과 현대의 리듬이 한데 섞인, 브라스와 퍼커션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강렬한 그루브로 관객들에게 신명을 전했으며, 이어지는 <송소희> 공연은 본인의 음악적 세계를 구축하고 확장해 나가는 싱어송라이터로서 그녀의 면모를 볼 수 있었던 무대로 꾸며졌다.

축제의 피날레는 '안은미컴퍼니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가 장식했다. 안무가이자 무용가인 안은미가 전국을 돌며 만난 춤추는 할머니들의 몸짓을 담아낸 기록과 무대 위의 몸짓이 만나고 섞이며, 역사가 배인 몸짓에 대한 미학적 현정의 경험을 선사했다.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전북지역의 '광복동요(1945년 생)' 할머니들이 전문 무용수와 함께 무대에 올라 공동체적 정신과 삶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깊은 울림을 줬다. /장은성 기자

'폴링인전주 at CGV' 특별 기획전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특별 기획전 '폴링인전주 at CGV'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9월 3~16일 2주간 전국 CGV아트하우스에서 진행된다.

'폴링인전주 at CGV'는 CGV와의 협력으로 마련,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은 수상작과 화제작으로 국내 10편, 해외 20편 등 총 30편이 상영된다.

이번 기획전은 최근 한국 독립영화 지원에 앞장서 온 후지필름일렉트로닉이미징코리아(이하 후지필름 코리아)가 후원한다.

특히 기획전은 단순 상영을 넘어 감독·배우와의 관객과의 대화(GV) 등 부대 행사도 마련, 관객에게 더 깊은 영화적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예매는 29일부터 CG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 5개 작품 선정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지난 13일 마감된 '2025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에서 총 312건이 접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모전은 지난해보다 접수 건수가 세 배 가까이 늘어나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심사에는 명창 왕기석, '슈퍼스타' 작곡가 이한철,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주제곡 작곡가 김백찬, 프로듀서 안호성 등이 참여해 작품의 대중성·창의성·AI 기술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곡은 오는 30일 전주 팔복 예술공장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청중평가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시민 청중평가단은 현장에서 직접 곡을 감상하고 투표에 참여해 작품

의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청중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오프라인 현장 평가에 한정됐던 방식에서 한 단계 확대된 것으로, 더 많은 시민이 국악과 AI 음악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다. 온라인 참여자에게는 추천을 통해 무료 음료 쿠폰도 제공한다.

최종 순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청중평가 결과를 합산해 시상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미래문화기획팀(070-7711-37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16)

알아봤나?

- 오 상 근 -

'야, 너 알아보고 있진 알아보고 있는 거냐? 뺑에서 나왔으니 용돈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냐? 신경 좀 써라.'

신경 좀 써라? 용돈을 벌어도 내가 버는 건데, 왜 정태가 신경을 쓰라는 건가.

동식에게는 용돈을 챙기라 말을 하면서도 정태는 분명 청룡으로부터 뒤통을 받을 욕심을 내고 있거나 미리 선금을 당겼을 지도 모른다.

"그래야지요."

동식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야, 인마.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뺑에 오래 있더니 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 너, 많이 변했구나.'

눈치 하나는 빠르다. 동식의 처진 목소리에서 정태는 뭔가 감을 잡은 것이다.

'하, 자식. 옛날에 팔팔 날라 다니던 그 강동식은 어디 갔냐?'

동식은 변명하고 싶지 않았고 할 말도 없었다.

'어유! 하여튼 청룡 사장이 나한테 전화하기 전에 신경 좀 써라. 알았나?'

정태의 투정을 막으려면 얼른 오케이 답을 던져줘야 한다.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되든.

"예, 형님."

정태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아무래도 박창수의 제안을 받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차라리 할 바에는 크게 한탕하고 시원하게 뜨는 게 좋지 않을까.

착한 사람들 협박이나 하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이나 하면서 풍돈을 챙기느니 큰 거 하나 몰아서 이 바다를 날라버리는 게 미래를 봐서도 옳은 선택 아닐까.

작업을 하는 내내 동식의 머릿속을 점령하는 생각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동식은 서울 후배 서중훈에게 전화를 넣었다.

"알아봤나?"

'예, 형님.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 형님에게 전화를 드려려고 했는데요, 형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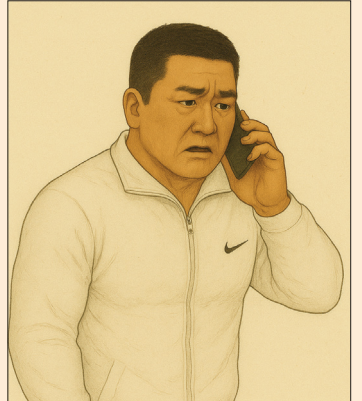
"강용대란 사람이 정말 있느냐?"

'예, 있습니다요, 형님. 형님이 알려주신 주소로 찾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요, 형님.'

박창수의 진지한 목소리로 봐서 살인청부가 장난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강용대란 자가 실존 인물이란 말을 들으니 동식은 땀배가 뻘뻘해지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직접 만나보지는 않고?"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는데요, 형님. 하



지만 차안에서 강용대란 자를 지켜보긴 했습니다요, 형님. 형님이 알려주신 얼굴하고 비슷했습니다요, 형님.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보였습니다요, 형님.'

"알았다. 수고했다."

'혹시, 무슨 일로.....'

동식은 그건 나중에 알려줄 것이고 너에게 긴요한 일을 맡길 수도 있으니 강용대를 잘 감시하고 있으라 말한 뒤 통화를 마쳤다.

전화를 끊고 나자, 안개 같은 생각이 단단하게 뭉쳐져 고체 덩어리로 변하면서 가슴을 무겁게 압박해왔다.

법을 어기고 죄짓는 일을 밥 먹고 똥 싸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왔던 동식이다. 하지만 사람의 숨통을 끊어놓는 일은 법을 어긴다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어부가 조기 백 마리 잡는 것과 고래 한 마리를 잡는 것은 단가가 다르지 않는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른 동식이다. 칼로 사람을 찔러보기도 하고 쇠파치로 몸만 잠시 고장 날만큼만 가격해본 일도 있다.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왜 사람 하나 못 죽이겠는가. 동식은 어금니를 단단히 사리물었다.

'알아봤소?'

지난 번, 박창수는 강용대의 인적사항을 동식에게 알려준 바 있다. "예, 알아보았어요. 그런 사람이 서울에 있긴 있더군요."

'어떻소?'

일을 하겠느냐는 물음일 게다. 동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제10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5년 9월 4일(목) 오후 6시30분~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사회-서정우

이태원

김민명

혜미

박명일

백명주